

일심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

량 성 광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일심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는데 대하여 명확히 밝혀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입니다.》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조직사상적, 도덕의리적단결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승의 무기이다.

일심단결은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일떠서는 나라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일떠서는 가장 존엄높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된다.

일심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기때문이다.

혁명투쟁에서 단결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으며 단결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뭉치면 강자가 되고 흩어지면 약자가 된다.

단결은 사회주의의 밑뿌리이며 사상의 위력도 결국은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발현된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단결된 사회주의만이 강력한 사회정치적지반우에서 승승장구할수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첫째가는 징표는 정치사상강국이며 정치사상적힘은 국력의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은 다름아닌 일심단결의 힘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사회적안정의 근본담보이고 강성국가의 정치사상적지반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일심단결의 지반우에 건설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강국이다.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첫째가는 모습이며 그 불패성과 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적지반을 굳건히 다지고 그 어떤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정치적안정을 고수하며 자주정치를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상징이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의 위력의 무한대한 원천일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부강조국건설의 강유력한 추동력이다.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나 사회의 단합과 단결에 대하여 모색하지만 온 사회의 철통같은 통일단결, 일심단결을 실현한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어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기 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으며 오늘은 정치사상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온 세상에 자기의 존엄을 높이 떨쳐가고있는것이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온 사회에 수령의 유일사상이 꼭 들어차게 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적인 사상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무비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나가도록 할수 있다.

풍부한 자연부원이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으로 건설하는것이 강성국가이며 그것을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하도록 하는데 강성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전체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사상과 뜻, 행동을 하나와 같이 진행하려는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투쟁속에서 높이 발휘할 때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평시에 지도부에 대한 충실성을 곧잘 외우던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시련의 시기에 배신의 길로 나간 실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령도자의 두리에 혼연일체로 더욱 굳게 뭉쳐 단결의 위력으로 투쟁하고 전진하여왔다.

령도자의 뜻과 의지가 곧 천만군민의 신념이 되고 전체 혁명대오가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오직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심단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이 발휘하는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조선혁명의 주되는 총화이다.

천만군민이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해나가있기에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우리 나라는 강성국가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있고있는것이다.

일심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불패의 군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불패의 군력과 막강한 경제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가 갖추어야 할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불패의 군력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막강한 경제력은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마련되게 된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군력에서 기본은 혁명군대의 위력이며 여기에서도 중요한것은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이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 장병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련

계, 자각적군사규률에 있다.

혁명군대는 그 어떤 군대도 가질수 없는 정치사상적위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된다.

혁명군대가 가지는 정치사상적위력은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군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에 기초할 때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질수 있다.

최고사령관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친아버지로 모시고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혁명군대는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물과 불 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치게 된다.

혁명군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한치의 드립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보위하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길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나가게 한다.

혁명군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군인들에게 그 어떤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는 드센 배짱과 원쑤와는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멸적의 투지와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제국주의침략자들과의 혁명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펼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일심단결의 위력은 혁명군대를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대오, 백전백승만을 알고 불가능을 모르는 무적의 전투대오, 혁명의 핵심부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일심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이와 함께 혁명군대안에서 최고사령관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관병일치를 철저히 실현하고 군민대단합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강성국가의 군사적위력을 비상이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일심단결이야말로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져 군사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막강한 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한 담보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마련하는것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을 건설하는것에 못지 않은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밑천과 위력에 의거하여 세계의 경제대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막강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여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적우월성을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한편 비렬하고 광란적인 제재와 봉쇄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류력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우기 위해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물론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하여 경제건설력사가 짧고 뒤떨어진 경제토대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강국의 높은 봉우리를 빨리 점령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의 악랄성으로 하여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나서고있는 비상히 높고 방대한 투쟁목표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기본으로 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것을 근본방도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대중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은 유리한 경제발전조건이 조성되었다고 하여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다.

막강한 경제력은 경제발전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는 과정에 마련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는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받들어 한몸 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힘에 의하여서만 타오를수 있다.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며 대고조의 승리로 수령을 결사옹위할 드높은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불굴의 정신력, 강제정신의 창조자들인 자강도사람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일터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였다.

이것은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비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일심단결은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본담보이며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로선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위에 강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